

'신천지' 대구에서 '정부청사' 세종까지... '흔들린 주말'

엇갈린 민심... "신천지 교인 싫다" vs "똑같은 피해자로 봐야"

부산·대구 등 확진자 동선 '텅텅'... "정부·국민 공조, 골든타임 사수"

전국의 주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크게 흔들렸다. 대구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토요일 하루에만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다. '컨트론타워'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마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역학조사와 정부조치, 격리일정을 감안하면 짧게는 다음 주, 길게는 내달 초까지 확산세를 잡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하루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229명 추가됐다. 국내 확진자는 21일 204명 대비 2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인원도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매일 10시 코로나19 확진자를 공개하고 있는데 대구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전파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 코로나 매개... 확진자 50% 이상 영향

의 청정지역으로 알려졌던 울산, 세종시 등 대도시도 대구 교회를 다녀온 신천지 교인들이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그 동안 정부의 방역 노력이 허물어졌다.

지역과 관계없이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환자는 22일 기준 62명으로 집계됐다. 신천지대구교회를 통한 확진자는 대구(45명), 경북(8명), 강원(2명), 경기(1명), 서울(2명), 광주(2명), 부산(1명), 울산(1명) 등이다. 이로써 이날 오후까지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환자는 총 352명으로 신천지대구교회 교인과 이를 접촉한 환자는 231명 수준이다. 전체 확진자 433명의 50%를 상회한다.

세종의 경우 금남면 신성미소지움 아파트에 사는 A씨(32)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집회 참석 후 인후통과 가래 증상을 보여 세종시보건소를 찾았다.

특히 세종에선 확진 발표 전날인 21일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세종맘카페'에서 소문이 나돌아 젊을 부모들의 속을 태웠다. 신생도 시로 감염 우려가 높은 '영유아'가 있는 가구가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혈연을 치루

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인근 오송에 있고, 컨트론타워격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핵심 정부부처가 세종에 있어 정부 안팎에서도 코로나의 청사 유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의 확산을 유발한 신천지를 보는 시각도 비판적이다. 22일 낮엔 세종시의 은밀한 신천지 '포섭'을 일리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아이디 'bana**'인 작성자는 "3년 동안 알고 지낸 언니가 신천지였다"며 고운동 인문학강의, 심리상담 등 다양한 강좌를 통해 자신을 신천지에 포섭하려고 했고 당시 소개받은 신천지 그룹도 유치원, 초등학교생, 중학생 부모들이라고 밝혔다.

◇ 엇갈린 민심... "신천지 교인 싫다" vs "그들도 국민이자 피해자"

이 같은 글을 전한 한 학부모는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퍼졌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글을 읽고 나니 감기를 달고 사는 우리 애가 밖에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두려워진다"고 토로했다. 다만 일각에선 신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모습. 이날 청주에서는 30대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천지 교인도 다른 이들을 통해 감염된 피해자라며 정부의 대책에 따르지 않는 이들을 제외하면 일방적인 매도는 자칫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벗어나 '화풀이 대상' 여론으로 변질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불기운을 느끼려던 시민들의 발걸음도 한산해졌다. 대구 동성로, 부산 해운대 등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조금이라도 스쳐 간 중심가 상권은 찬바람만 오간 모양새다. 간혹 오가는 시민들 중 마스크를 끼지 않는 이들은 주변의 불안한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이 가운데 전북도의 한 공무원이 애타는 심정을 SNS에 적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강영석 전북 보건의료과장은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대한 전북도민들께 바랍니다.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전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동선에 공개된 가게와 확진자의 마녀사냥을 경계하며 "저는 지금까지도 당장 사무실을 박차고 달려가 그분들의 식당이며 업체에서 두 번 세 번이고 맛나게 밥을 먹고 참치도 먹고 싶다"

고 전했다. 이어 도민들을 향해 "마녀사냥은 아무나 할 수 있다"면서 "동선 공개로 아파할 도민들에게 위대한 전북도민의 따사로운 살림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과와 당부를 전하며 코로나19의 강력대응 의지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동선 공개로 코로나19가 역학조사보다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의심증세가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코로나19 방역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프다는데 왜 검사 안해주나?"...코로나 검사기준 온도차



지난 22일 제주에서 두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 호텔 직원의 이동 동선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

이 여성이 지난 18일 두통과 몸살 등의 증상을 보여 다음날인 19일 선별진료소를 찾았으나 증상이 약해 며칠 더 지켜보라며 의료진이 되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이 여성이 이를 뒤인 21일 다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기는 제주에

서 대구 출신 군인이 첫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었다.

결국 이 여성은 이때서야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22일 1차 양성에서 이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21일 선별진료소 방문 당시에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숙소로 돌아갔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출신 군인도 선별진료소에서 대기하지 않고 부대로 복귀했다.

이 역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당시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의료진이나 지자체를 탓하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일반인의 정서와 전문가의 판단 기준에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코로나 사례정의는 크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나뉘는데 그 정의는 확진 결과 등에 따라 수차례 바뀌어 유동적이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일 개정됐다.

의사환자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이거나 다른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보여야 한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애초에는 중국 우한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였으나 현재는 감염증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개정됐다.

이와 함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도 포함된다.

두번째 확진자가 처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19일에는 두통이나 몸살은 있었으나 코로나 증상인 발열이나 기침 등은 없었다. 무엇보다 중국 방문 이력이 없었다. 대구를 다녀오긴 했지만 당시 지침상 대구 방문 이력만으로 검사하지 않아도 무방했다.

그러나 지침이었다고는 해도 선별진료소에서 되돌아간 이 확진자는 이후 이틀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마트를 방문하는 등 2차 감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례정의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시 지침상 대구를 다녀왔다는 것만으로 검사를 하지는 않아도 됐다"며 "다만 이제부터는 지침과는 별개로 좀 더 강화된 사례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침에 충북도 중환자들 밀려...

도 보건복지국은 청주의료원 92실, 충주의료원 82실을 감염병 전담 병실로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정부지침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중환자실을 포함한 모든 입원환자가 인근 병원 등으로 옮기고 입원실을 비워야 한다.

충주의료원은 이날까지 퇴원해야 하는 환자가 160여명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환자 가족 등은 "병원 이태야 건국대 충주병원뿐이고, 거기도 환자가 넘쳐날 텐데 다른 병원 환자까지 받을지 막막하다", "굳이 확진자 없는 동선에 다른 지역 확진자 데리고 온다고 아픈 사람 내쫓는 거 너무 해요", "병원을 연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걱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중환자실 환자가 구급차가 없어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다른 병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이송 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정부지침이라지만 환자 및 보호자는 당혹스러울 뿐", "왜 시민 동의도 없이(이런 일이) 이뤄지는 거죠?"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다. 한 입원 환자 가족은 "주말 제한하면 평일 3~4일 만에 입원환자 전원을 나가라는 말과 같다"면서 "최소한 어디로 가라고 정해줘야 하는 건 기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충주의료원 인근에는 산후조리원도 있어 입산부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보건복지국 관계자는 "지역 내 병원의 가용 병상을 조사해 의료원 측에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보건소 측에도 입원 환자의 전원(轉院)을 도울 수 있게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입원 환자가 병원을 옮기려면 치료를 잠시 중단해도 괜찮은 몸인지, 옮기고자 하는 병원에서 지금과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고려돼야 한다.

이후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아 환자 보호자가 옮기고 싶은 병원에 가서 환자를 대신해 외래 진료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이동할 때는 사설 응급 이송단의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용 대금 수십만원은 입원 환자 몫이다.

춘천, 확진자 접촉 249명 자가격리 중...더 늘어날 수도

강원 춘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0대

여성 2명과 접촉한 시민 249명이 자가 격리 중인 가운데 추가 동선

확인에 따라 격리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자 코로나 검사. 지난 2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간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A씨(22)가 근무하던 제주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충북·부산 음압병상도 짝 찼다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전국 국가 지정 음압병상의 가동률이 50%를 넘어섰다. 특히 대구·경북에 이어 충북과 부산의 음압병상도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으로 국가 지정 음압 병상은 57.8%가 확진·의심 환자를 수용 중이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 47.8%에 비해 10%포인트(p)가 증가한 수치다. 전국 국가 지정 음압병상의 절반 이상이 사용 중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대구·경북에

이어 충북·부산의 음압병상 가동률이 이날 100%에 도달해 더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음압병상 수는 대구가 54개, 경북 34개, 부산 90개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전남·제주·울산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의 가동률이 50%를 넘었다.

지역별 가동률은 서울 서울 61.3%, 인천 56.3%, 광주 66.7%, 대전 50%, 경기 61.5%, 강원 50%, 충남 71.4%, 전북 75%, 경남 50%를 기록했다. 제주는 25%로 50%를 넘지 않았고, 울산·전남의 가동률은 0%이었다.